구결자 '斤'의 해독에 대하여

황선엽*

요 약

이 글에서는 석독구결 및 음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자 '斤'의 독법을 새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斤'을 '놀'로 읽고 연결어미 '-(거)놀'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석독구결 자료 중 같은 문맥에 'ㅁㅅㄱ'과 'ㅁㅅ斤'이 같이 쓰인 예가 있음에 주목하여 '斤'은 그 음대로 '근'으로 읽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斤(근)'은 보조사 '-ㄱ'에 다시 보조사 '-ㄴ'이 통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불가능했으나 석독구결 자료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구성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음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斤' 역시 보조사 '-ㄱ'과 '-ㄴ'이 통합한 '-근'으로 읽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음독구결에서는 자료에 따라 '斤'의 기능이 다소 변화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예도 있다.

*핵심어: 석독구결, 음독구결, 斤, 독법 추정, 보조사 통합

*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 문제제기

이 글은 석독구결 및 음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斤'에 대한 이전의 독음 추정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斤'의 새로운 독음을 제시하며 나아가 그 형태적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재(1990)에서 밝혀졌듯이 '斤'은 '口'와 'ㅈ' 뒤에서만 나타나며 주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사용이 된다. 이러한 '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구결 연구에서는 훈독하여 '늘'로 읽어 왔다. 즉 '-口斤, -ㅈ斤'을 '-고늘, -아늘'로 읽고 이들이 연결어미로 기능하는바 '-ㅁ-, -ㅈ-'는 선어말어미일 것으로 추정을 하였다. 이렇게 '斤'을 훈독하여 '늘'로 읽은 것은 석독구결 '-ㄱㄴ', 음독구결 '-ㄷ/乙', 15세기 한글문헌 '-거늘/거늘'에 보이는 '늘/늘' 등을 다분히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승재(1990)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ㄱㄴ, -ㄷ, -거늘'은 전제의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斤'은 조건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口斤, -ㅈ斤'과 비교하기 위해 석독구결 '-ㄱ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 ㄱ. 復刀 是ㄲ 念ㄴ 作ン𠂇丁 此ㄲ 身ㄱ 危ま 脆まンゝ 有堅固ンㄱ 無ㄱㄴ 我ㄱ 今ンㄱ 云何ヒミ 而ゃ 戀著ノ尸入ㄴ 生ㄲ ヲ禾ゝヒロ <화소 16:10-12>

ㄴ. 其會ヒ 方廣ㄱ 九百五十里ㄲㄱㄴ 大衆ㄲ 僉然ま 而ゃ 坐ンヒ ハニㅣ <구인 2:7-9>

ㄷ. 一切 世間ヒ 衆ㄱ 苦患ㄱ 深ンま 廣ンまンゝホ 涯ラ 無ㄱ矢 大海 如支ンロㄱㄴ 彼ㄴ 與ヒ 同事ンゝホ 悉 能支 忍ンゝ 其ㄴ 利益ンゝホ 安樂ㄴ 得ㄲ 令ㄲナカ <화엄 18:12-14>

ㄹ. 一切 衆生ㄱ [暫]ᄋᆞ火ㄷ 報ᄀᆞ十 住ᄉᆞᄅᆞㄱᄂᆞᆫ 金剛原ᄀᆞ十 登ᄉᆞ ᄀᆞᄒᆞᄃᆞㄱᄲᅵᄋᆞ 淨土ᄀᆞ十 居ᄉᆞᄃᆞᄅᆞᄒᆞᄒᆞᄂᆞᆫᅵ <구인 11:07>

ㅁ. 法界ㄱ 分別 無ㄴᆞᄅᆞㄱ 是故ᄆᆞᆷ 異ᄉᆞㄱ 乘 無ㄴᆞᄅᆞㄱᄂᆞᆫ 衆生ᄂᆞ 度ᄉᆞ [爲]ᄉᆞᄉᆞᄃᆞᄑᆞᄉᆞᄆᆞᆷ 故ᄂᆞ 分別ᄉᆞᄀᆞ 三乘ᄂᆞ 說ᄃᆞᄅᆞㄱᄲᅵᄀᆞㄴᆞᄉᆞᄇᆞᄒᆞᄃᆞᄂᆞᆫᅵ <금광 13:12-17>

ㅂ. 或ᄉᆞㄱ 手足ᄀᆞ 血肉ᄀᆞ 心肺ᄀᆞ 頭目ᄀᆞ 髓腦ᄀᆞᄂᆞᄉᆞᄂᆞ 乞ᄉᆞᄑᆞㄲ ᄉᆞᄀᆞᄅᆞㄱᄂᆞᆫ 菩薩ㄱ 是ᄂᆞᄉᆞㄱ 時十 心ᄀᆞ十 [是]ᄲᅵ 念ᄂᆞ 作ᄉᆞᄂᆞᄑᆞ ᄀᆞ <화소 12:13-15>

ㅅ. 衆生ᄲᅵ [於]見ᄂᆞ 失ᄲᅵᄀᆞㄱᄂᆞᆫ 世尊ᄲᅵᄃᆞᄀᆞ 能ᄀᆞ 濟度ᄉᆞᄃᆞᄅᆞᄂᆞ ᄀᆞ <금광 13:3-6>

ㅇ. [是]ᄲᅵ 月光王ㄱ 已ᄀᆞ [於]過去ㄷ 十千劫ㄷ 中ᄀᆞㄷ 龍光王佛 法ㄷ 中ᄀᆞ十ᄉᆞᄀᆞ 四住ㄷ 開士ᄲᅵᄑᆞ [爲]のᄂᆞᄉᆞᄂᆞㄱᄂᆞᆫ 我ㄱ 八住ㄷ 菩薩ᄲᅵᄑᆞ [爲]のᄂᆞᄉᆞᄂᆞᄒᆞ白ᄅᆞㄱ のᆷ <구인 11:20-22>

(1ㄱ)과 (1ㄴ)은 어간 뒤에 직접 연결어미 '-ㄱㄴ'이 통합한 예이며 (1ㄷ)~(1ㅇ)은 연결어미 '-ㄱㄴ' 앞에 선어말어미가 통합해 있는 예이다. (1ㄷ)~(1ㅁ)은 선어말어미 '-ㅁ-', (1ㅂ)은 선어말어미 '-ㅊ-', (1ㅅ)은 선어말어미 '-ᄀᆞ-', (1ㅇ)은 선어말어미 '-ᄂᆞ-, -ㅏ-'가 각기 통합하였다.

위의 예에서 연결어미 '-ㄱㄴ'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제 정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1] 조건의 의미로 쓰인다고 알려진 '-ᄼ'과는 의미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ㄱㄴ'과 '-ᄼ'은 통사적인 통합 관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어간 뒤에 직접 통합한 예가 보이는 '-ㄱㄴ'과 달리 '-ᄼ'은 단독으로 어간에 통합한 예가 없다. 다음으로 (1ㄹ)과 (1ㅁ)은 선어말어미 '-ㅊ-'와 '-ᄀᆞ-'가 교체되어 쓰일

1) 이현희(1994:71)에서 연결어미 '-거늘'은 문맥에 따라 근거, 대조, 역접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석독구결의 '-ㄱ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ᄀᆞᆯ' 앞의 'ㅣ'는 'ㅕ'로 실현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10)은 '-ㄱㄴ' 앞에 선어말어미 '-ㅏ-'가 통합한 예를 보여 주는데 '-ᄀᆞᆯ'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ㅁ'와 'ㅣ' 뒤에서만 나타난다.

즉 '-ㄱㄴ'과 '-ᄀᆞᆯ'은 의미와 통사적인 통합관계가 전혀 다른 별개의 형태이다. 따라서 연결어미 '-ᄂᆞᆯ'과 관련하여 'ᄀᆞᆯ'을 'ᄂᆞᆯ'로 읽어 왔던 것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ᄀᆞᆯ'을 'ᄂᆞᆯ'로 읽으면서 'ᄀᆞᆯ'의 훈이 'ᄂᆞᆯ'이 아니라 'ᄂᆞ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해 볼 수 있다. 이제 필자는 '-ᄀᆞᆯ'을 무엇으로 읽어야 하며 그 형태적 구성은 어떠한가, 또한 그 주요 의미는 조건임이 확실한가 하는 등의 문제를, 'ᄀᆞᆯ'을 'ᄂᆞᆯ'로 읽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료가 보여 주는 바를 따라 다시 원점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석독구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음독구결에서도 이러한 해결책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2. 석독구결에 보이는 'ᄀᆞᆯ'

석독구결에서 'ᄀᆞᆯ'의 독법 및 기능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먼저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2) ㄱ. 彼ㄴ 見ㅢᄆᆞ 已ㅕㅅᄋᆞㅁㅗ 皆ㄷ 調伏 令ㅢㅁㅗㅌᄀᆞ <화엄 20:4-7>
ㄴ. 勝義正法隨轉圓滿ㅢㅣㅅᄀᆞㅅᄀᆞ[者] 謂ㄱ 卽ㅎ 大師ㅢ 善ᄀᆞ 爲ㅎ 俗正法ㄴ 開示ᄆᆞ 已ㅕㅅᄋᆞㅁㅗㅅ 諸 弟子衆ㅢ 此 正法ㄴ 依ᄀᆞ <유가 3:5-11>
ㄷ. [是]ㅢ 念ㄴ 作ㅅᄆᆞ 已ㅕㅅᄋᆞㅁㅗㅅᄀᆞ 卽ㅈ 便ㅢ [之]ㅢㄴ 施ㅅᄆᆞ ㅁ <화소 11:13-15>

ㄹ. 飯食ㄴ 已ㅣ 訖ᄒᆞ口ㅅ斤 當願衆生 所作ㄴ 皆ㄷ 辦ᄉᆞᆸᄒᆞ 諸ㄱ 佛法ㄴ 具ᄀᆞᄆᆞᄐᆞ立 <화엄 7:18-20>

ㅁ. 是 如ᄒᆞ 尸羅ㄴ 善 圓滿 已ㅣᄉᆞᆸ斤 五相ㄴ 以ㅣ 精勤方便ᄆᆞ 諸 善品ㄴ 修ᄉᆞᄂᆞᄒᆞ [應]ㄷㅣ <유가 17:17-18:1>

(2)는 모두 '已'자가 쓰인 구문에 구결이 달린 예이다. '已ㅣᄉᆞ/已ㅣ 訖ᄒᆞ-' 뒤에 쓰인 연결어미 부분만을 보면 (2ㄱ)은 '-ㅁ', (2ㄴ)은 '-ㅁㅅ', (2ㄷ)은 '-ㅁㅅㄱ', (2ㄹ)은 '-ㅁㅅ斤', (2ㅁ)은 '-ᄉᆞ斤'이 쓰여 이들이 모종의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하에서는 이 예들에 대해 하나씩 검토해 볼 것이다.

(2ㄱ)은 '已ㅣᄉᆞ-' 뒤에 연결어미 '-ㅁ'가 쓰인 예이다. (2ㄱ) 외에 다음의 예가 더 있다.

(3) ㄱ. 爾時十 文殊師利菩薩ㄱ 無濁亂淸淨行ㄷ 大功德ㄴ 說尸 已ㅣᄉᆞㅁ 菩提心ㄷ 功德ㄴ 顯示ᄉᆞ [欲]ㅅᄉᆞᄆᆞ尸ㅅㅂᄆᆞ <화엄 8:20-24>

ㄴ. 又 彼ㄱ 是 如ᄒᆞ 欲樂ㄴ 發生ᄉᆞᄒᆞ 勤精進ㄴ 發ᄉᆞᄒᆞ 遠離ㄴ 樂ᄒᆞᄉᆞ尸 已ㅣᄉᆞㅁ 喜足ㄴ 生尸 不ᄒᆞᄂᆞ尸ㅁ <유가 29:9-13>

석독구결 전체에서 연결어미 '-ㅁ'가 뒤에 보조사가 통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된 예는 27회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연결어미 '-ᄉᆞ(아)'가 500회 이상, '-ᄒᆞ(며)'가 700회 이상 사용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것이다. 전체 30회가 되지 못하는 연결어미 '-ㅁ'의 용례 중 '已ㅣᄉᆞㅁ'의 예가 10%에 달하는 3회나 된다는 것은 '-ㅁ'의 의미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세한국어 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현대국어에서 '-고'는 나열, 대조, 강조, 반복, 동시성, 계기, 결과 지속, 방법, 근거, 조건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독구결에서는

계기 내지 나열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다.[2] 즉 '-ㅁ'는 계기의 의미가 강한 까닭에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가 아님에도 '已ᄒᆞ시-' 뒤에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ㄴ)의 '已ᄒᆞ시ᄆᆞᄇᆞ'은 (2ㄱ)의 '已ᄒᆞ시ᄆᆞ'에 보조사 '-ᄇᆞ'이 더 통합한 예이다. 석독구결에서 이렇게 연결어미 '-ㅁ' 뒤에 보조사 '-ᄇᆞ'이 더 통합한 예는 모두 12회 나타난다. 이는 연결어미 '-ㅁ'가 단독으로 쓰인 예가 27회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ㄴ) 외에 '-ㅁᄇᆞ'이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4) ㄱ. 今ᄉᆞᆫ [此]ᄅᆡ 食ᄒᆞ 以ᄒᆞ 衆生ᄋᆞᆫᄐᆞ 惠施ᄉᆞᄆᆞᄇᆞ 願ㅁᄑᆞᄉᆞᆫ 我ᆫ [於]身ᄒᆞᆫᄐᆞ 永ᄃᆞ 貪著ᄒᆞ 斷ᄂᆞᄒᆞᄆᆞᄒᆞᆫᄂᆡᄉᆞᄂᆞᄑᆞᄉᆞᆫᄒᆞ <화소 9:18-20>

ㄴ. [此]ᄅᆡ 菩薩ᆫ 未來ᄒᆞᆫ 諸ᆫ 佛ᄃᆞ[之] 修行ᄉᆞᄒᆞᄆᆞᄑᆞ 所ᄒᆞ 聞ㅁᄇᆞ 有ᄒᆞ 非ᄉᆞᆫ 入ᄒᆞ 了達ᄉᆞᄀᆞ <화소 13:12-16>

ㄷ. 瓔珞ᄒᆞ 著ᄉᆞᄃᆞᆫ 時ᄂᆞᆫᄐᆞ 當願衆生 諸ᆫ 僞飾ᄒᆞ 捨ᄉᆞᄆᆞᄇᆞ 眞實處ᄒᆞᆫᄐᆞ 到ᄒᆞᄃᆞᆸ <화엄 2:22-3:2>

ㄹ. 鬚髮ᄒᆞ 剃除ᄉᆞᄃᆞᆫᄀᆡᄂᆞᆫᄐᆞ 當願衆生 永ᄃᆞ 煩惱ᄒᆞ 離ᄒᆞᄆᆞᄇᆞ 究竟寂滅ᄉᆞᄒᆞᆸ <화엄 3:8-12>

ㅁ. 大小便ᄒᆞᄉᆞᄃᆞᆫ 時ᄂᆞᆫᄐᆞ 當願衆生 貪瞋癡ᄒᆞ 棄ᄉᆞᄆᆞᄇᆞ 罪ᄒᆞ 法ᄒᆞ 蠲除ᄉᆞᄒᆞᆸ <화엄 4:9-12>

ㅂ. 事ᄒᆞ 訖ᄆᆞᄇᆞ 水ᄒᆞᆫᄐᆞ 就ᄃᆞᆫᄀᆡᄂᆞᆫᄐᆞ 當願衆生 出世ᄒᆞ 法ᄒᆞ 中ᄒᆞᆫᄐᆞ 速疾ᄒᆞ 而ᄆᆞ 往ᄉᆞᄒᆞᆸ <화엄 4:13-16>

ㅅ. 若ᄒᆞ 大柱ᄒᆞ 見ᄒᆞᆫᄀᆡᄂᆞᆫᄐᆞ 當願衆生 我諍ᄒᆞ 心ᄒᆞ 離ᄒᆞᄆᆞᄇᆞ 有忿恨ᄂᆞᄑᆞ 無ᄒᆞᄃᆞᆸ <화엄 5:5-8>

ㅇ. 無憂林ᄒᆞ 見 當願衆生 永ᄃᆞ 貪愛ᄒᆞ 離ᄒᆞᄆᆞᄇᆞ 憂怖ᄒᆞ 生ᄉᆞᄑᆞ 不ᄉᆞᄒᆞᆸ <화엄 5:19-24>

---

2) 고대국어에서 연결어미 '-고'의 의미가 현대국어와 달리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음은 황선엽(2002ㄱ)에서 논의된 바 있다.

ㅈ. 嚴飾 無ᄒᆞᆨᄂᆞᆫ 見 當願衆生 諸ᄀᆡ 飾好ᄒᆞᆫ 捨ᄂᆞᆫᄆᆞᄆᆞᄒᆞᆫ 頭陀ᄒᆞᆫ 行ᄒᆞᆫ 具ᄀᆞᄒᆞᆫᄃᆞᆫ <화엄 6:1-6>

ㅊ. 慙恥ᄂᆞᆫᄑᆞ 無ᄀᆞᆨᄂᆞᆫ 見 當願衆生 慙恥ᄂᆞᆫᄑᆞᄒᆞᆫᄂᆞᆫ 捨離ᄂᆞᆫᄆᆞᄆᆞᄒᆞᆫ 大悲ᄒᆞᆫ 道ᄋᆞᆯ 住ᄂᆞᆫᄒᆞᆫᄃᆞᆫ <화엄 7:10-13>

ㅋ. 信ᄀᆞ [於]境界ᄋᆞᆯ 所著ᄂᆞᆫᄑᆞ 無ᄅᆡᄂᆞᆫᄒᆞᄒᆞᆷᄀᆞ 諸ᄀᆞ 難ᄒᆞᆫ 遠離ᄂᆞᆫᄆᆞᄆᆞᄒᆞᆫ 無難ᄒᆞᆫ 得ᄅᆡᄂᆞᆫᄒᆞᄒᆞᆷᄀᆞ <화엄 10:4-9>

위 예에서 '-ᄆᆞᄆᆞᄒᆞᆫ'은 모두 계기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즉 보조사 '-ᄒᆞᆫ'이 더 통합해도 연결어미 '-ᄆᆞ'가 의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곡'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석독구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5) ㄱ. 어마니미 니ᄅᆞ샤ᄃᆡ 너희 出家ᄒᆞ거든 날 ᄇᆞ리곡 머리 가디 말라 <석상 11:37ㄱ>

ㄴ. ᄒᆞᆫ 몸애 五趣 내샤 내시곡 내시니 어느 微塵 가ᄌᆞᆯ비ᅀᆞᄫᆞᆯ리니 <월석 20:7ㄱ>

ㄷ. 그 사ᄅᆞ미 ᄒᆞ다가 病ᄒᆞ면 ᄇᆞᆫ 마시 잇곡 病 업슨 사ᄅᆞᄆᆞᆫ 져기ᄃᆞᆫ 觸이 이시리니 <능엄 3:9ㄱ>

(5ㄱ)은 계기의 의미로 쓰였으나 (5ㄴ)은 반복, (5ㄷ)은 대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석독구결과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곡'이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석독구결이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15세기 문헌에서도 '-곡'의 예가 그다지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결어미 '-고'의 의미역이 확대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결어미 '-고'가 계기 내지 나열에서 보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됨에 따라 '-곡' 역시 그러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서도 '-ᄆᆞ'와 보조사 '-ᄒᆞᆫ'이

더 통합한 '-ㅁㅅ'이 의미나 기능에 있어 그다지 큰 차이를 가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ㄷ)의 '已ᄒᆞᆫᄆᆞᄉᆞᆨ'은 (2ㄴ)의 '已ᄒᆞᆫᄆᆞᅀᆞ'에 보조사 '-ㄱ'이 더 통합한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와 같이 보조사 '-ㄱ' 뒤에 다시 보조사 '-ㄴ'이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석독구결에서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드물지만 연결어미 '-고'에 보조사 '-ㄴ'이 직접 통합한 예가 보인다. 보조사 '-ㄱ'이 점차 소멸하면서 '-ㅁㅅㄱ'가 같은 형태가 쓰이지 않고 '-곤'으로 대체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3)]

(6) 王이 車匿이 보시곤 太子 가신 ᄃᆡ 가려 ᄒᆞ더시니 <석상 3:34ㄴ>

'-ㅁㅅㄱ'과 같이 연결어미 뒤에 보조사 '-ㅅ'과 '-ㄱ'이 차례로 통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뒤에서 살필 '-ᄋᆞᅀᆞ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已ᄒᆞᆫᄆᆞᄉᆞᆨ'은 (2ㄷ) 외에 다음과 같이 『화엄경소』에만 4회 더 나타난다.

(7) ㄱ. [是]ㅣ 念ᄂᆞᆫ 作尸 已ᄒᆞᆫᄆᆞᄉᆞᆨ 悉ᄋᆞ 皆ᄂᆞᆫ 施與ᄂᆞᆫ尸ᄆᆞᆷ <화소 12: 16-19>

ㄴ. 聞尸 已ᄒᆞᆫᄆᆞᄉᆞᆨ 著尸 不ᄂᆞᆫᄋᆞᄒᆞ 有ᄒᆞ 非矢ㄱᄉᆞᆫᄂᆞᆫ 了達ᄂᆞᆫᄀᆞ <화소 13:1-3>

ㄷ. 是ㅣ 念ᄂᆞᆫ 作ᄂᆞᆫ尸 已ᄒᆞᆫᄆᆞᄉᆞᆨ [於]過去ᄂᆞᆫ 法ᄋᆞᆫ 畢竟 皆ᄂᆞᆫ 捨ᄂᆞᆫᄒᆞ尸ᄉᆞᆫᄂᆞᆫ 是ㅣᄂᆞᆫ 名下 過去施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ᄒᆞ <화소 13:9-11>

ㄹ. 聞尸 已ᄒᆞᆫᄆᆞᄉᆞᆨ 其心ᄒᆞ 迷尸 不ᄂᆞᆫᄒᆞ 沒尸 不ᄂᆞᆫᄒᆞ 聚尸 不

3) 연결어미 '-고'에 보조사 '-ㄴ'이 통합한 형태인 '-곤'은 후행절에 수사의문문이나 수사의문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문장을 수반하는 연결어미 '-곤'과는 다른 것이다. 후자의 '-곤'에 대해서는 황선엽(2002ㄴ)에서 선어말어미 '-고-'에 동명사어미 '-ㄴ'이 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ᄉᆞᆷᄒᆞ 散ᄒᆞ 不ᄉᆞᆷᄉᆞᄫᆞ <화소 15:6-8>

'已ᄒᆞᄉᆞᄅᆞᄒᆞᄀᆞ' 외에 '-ㅁᄒᆞᄀᆞ'이 쓰인 예로 다음의 것이 더 있다.

(8) ㄱ. 一切 恩愛ᄀᆞᆯ 會[恨]ᄉᆞᄆᆞᄉᆞᄅᆞᄒᆞᄀᆞ 當ᄒᆞ 別離ᄒᆞᄆᆞᄀᆞᄒᆞ <화소12:15-16>
ㄴ. 衆生ᄀᆞ 資身ᄒᆞᆫ 具ᄒᆞᆫ [有]ᄒᆞᄒᆞ 未ᄒᆞᄂᆞᄀᆞᄉᆞᄒᆞᆫ 見ㅁᄒᆞᄀᆞ 是ᄒᆞᄒᆞᆫ ᄉᆞᄀᆞ 時ᄒᆞ 菩薩ᄀᆞ 工匠ᄒᆞᄒᆞ [爲]ᄉᆞᄒᆞᆫᄉᆞᄀᆞ <화엄19:12-15>

이상에서 '-ㅁᄒᆞᄀᆞ'은 연결어미 '-ㅁ'에 보조사 '-ᄒᆞ'과 '-ᄀᆞ'이 차례로 통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ㅁᄒᆞᄀᆞ'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앞서 '-ㅁᄒᆞ'이 계기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ㅁᄒᆞᄀᆞ'은 계기에 보조사 '-ᄀᆞ'의 의미만큼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조사 '-ᄀᆞ'은 한정의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으나 연결어미로 기능하는 예에서는 조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ㅁᄒᆞᄀᆞ'의 '-ᄀᆞ' 역시 문맥에 따라 그러한 두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ㅁᄒᆞᄀᆞ'은 경우에 따라 '계기+한정'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계기+조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ㅁᄒᆞᄀᆞ'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현대국어에서 '-고서는'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9) ㄱ.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고서는 박수를 다섯 번 쳤다.
ㄴ. K 리그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4]

4) 현대국어에서 '-고서는'은 이와 같이 후행절에 부정문일 오는 경우에 조건의 의미로 쓰인다. 이것은 '-아서는'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렇게 어수선해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와 같이 '-아서는'도 후행절에 부정문이 와서 조건의 의

(9ㄱ)의 '-고서는'은 '계기+한정'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9′ㄴ)의 '-고서는'은 '계기+조건'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또한 '-ㅁ, -ㅁㅅ, -ㅁㅅㄱ'은 각기 현대국어로 '-고, -고서, -고서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ㅁ, -ㅁㅅ, -ㅁㅅㄱ'이 (2ㄱ)~(2ㄷ)과 같이 비슷한 구문에 쓰일 수 있듯이 '-고, -고서, -고서는'도 다음과 같이 같은 구문에 쓰일 수 있다.

(9′) ㄱ.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박수를 다섯 번 쳤다.
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고서 박수를 다섯 번 쳤다.
ㄷ.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고서는 박수를 다섯 번 쳤다.

'-고, -고서, -고서는'이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ㅁ, -ㅁㅅ, -ㅁㅅㄱ'도 그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2ㄹ)의 '已ᄒᆞ 訖ᄒᆞㅁㅅ爿'도 (2ㄷ)의 '已ᄒᆞᄉᆞㅁㅅ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예를 통해 '爿'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已ᄒᆞ 訖ᄒᆞㅁㅅ爿'에서 'ᄒᆞ'은 '訖'의 말음첨기로 추정되므로[5] 'ᄉᆞ-' 대신에 '訖ᄒᆞ-'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已ᄒᆞᄉᆞㅁㅅㄱ'과 거의 같은 구성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已ᄒᆞᄉᆞㅁㅅㄱ'에서는 보조사 '-ㅅ' 뒤에 보조사 '-ㄱ'이 통합하여 있는 데 반해 '已ᄒᆞ 訖ᄒᆞㅁㅅ爿'에서는 'ㄱ'이 '爿'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필자는 이 예를 통하여 '爿'을 그 한자음 '근'으로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ㅁㅅㄱ'을 '-고근/고곤'으로 읽을 수 있는바 이 구성이 자주 쓰여 점차 하나의 연결어미처럼 인식됨에 따라 '-ㅁ爿'과 같이 표기될 수 있었

미로 쓰인다.

5) 석독구결 자료에서 이 예 외에 위의 (4ㅂ)에서도 '訖'자가 쓰였는데 (4ㅂ)에서는 말음 'ᄒᆞ'이 첨기되지 않고 '-ㅁㅅ'이 통합하였다. '訖'이 그 어휘의미상 계기의 의미를 가지는 '-ㅁㅅ'이나 '-ㅁㅅㄱ'과 통합한 예가 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2ㄹ)에 보이는 '-ㅁㅅ斤'은 '-ㅁ斤'에서 보조사 '-ㄱ'이 중철표기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석독구결에서 중철표기가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10) ㄱ. 諸ㄱ 衆生ㄴ 調伏ンヒヲ分 若七 能ㄴ [是]ㅣ 如ㄴ 衆生ㄴ 調ンㅎ(ㅎ)トㅁㄱ入ㄴンヒ尸ヲ分 則 量 無ㄱ 神通七 力ㄴ 現ㅁヒヲ分 <화엄 13:1-4>

ㄴ. 十六大國王ㅣ 意ㅋ十 國土ㄴ 護ノ今七 因緣ㄴ 問白 [欲]人ンニトろㄱのㄴンム 知白ㅋㅁろㄱミンㄱ乃 吾ㄱ 今ンㄱ 先ㅋ 諸ㄱ 菩薩 [爲]ㅎㅎ 佛果ㄴ 護ノ今七 因緣ㅎ <구인 3:17-18>

ㄷ. 五眼ㅣ 成就ンムハニㄱヒ七 時十 見ニㄱ乃 見ろ尸 所ㅋ 無七ニ分 <구인 15:15-18>

중철표기가 아닌 '-ㅁ斤'은 비록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유가사지론』에 나타난다.

(11) ㄱ. 是 如ㄴンㄱ 初支七 生圓滿七 廣聖教七 義ㅋ十 此 十種 有ンㄱ 一 此ㄴ 除ㅁ斤 更ㅋ 餘生圓滿ㅣ 若過ンㅎ 若增ンㅎンㄱ 無ナㄱㅣㅣ <유가 3:22-4:6>

ㄴ. 此ㄴ 除ㅁ斤 更ㅋ 若過ンㅎ 若增ンㅎンㄱ 无ナㄱㅣㅣ <유가 6: 7-13>

(11)의 '除ㅁ斤'은 『유가사지론』에 13회 나타나는데 남풍현(1999:13)에서는 '斤'에 대하여 '근'음을 표기하기도 하지만 『유가사지론』에서는 '늘'음의 표기에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뒤에 자료를 한글로 轉寫한 곳에는 '는'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ㅁ斤'과 '-ㅁㄱㄴ(고늘)'이 의미가 분명히 다르며 '-ㅁ斤'이 '-고 나서는'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11)의 '-ㅁ斤'은 현대국어로 '-고 나서는' 정도의 해당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면' 정도에 해당하는 조건의 연결어미로도 파악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ㅁ斤'에 조건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ㅁ斤'은 '-ㅁㅅㄱ'과 같이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의 의미로 모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2ㅁ)의 '已ᄒᆞᆫᄃᆞ斤'에 쓰인 '-ᄃᆞ斤'도 '-ㅁㅅㄱ/ㅁ斤'과 관련지어 볼 때 연결어미 '-ᄃᆞ'에 보조사 '-ㅅ'과 '-ㄱ'이 차례로 통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ᄉᆞᅀᆞㄴ, -ᄃᆞᄀᆞㄴ'과 달리 '-ᄃᆞ斤'의 'ᄃᆞ'가 'ᄉᆞ'로 교체되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ᄃᆞ斤'의 'ᄃᆞ'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인 까닭에 'ᄉᆞ'로 교체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연결어미 '-ᄃᆞ'에 보조사 '-ㅅ'과 '-ㄱ'이 차례로 통합하여 '-ᄃᆞ斤'이 아니라 그 원형대로 '-ᄃᆞㅅㄱ'으로 표기된 예가 다음과 같이 『화엄경소』에 보인다.

(11) ㄱ. 世間ㄱ 何ᄀᆞ 處ㄴ 從ㄷ 來ᄂᆞᆫᄀᆞ <u>去ᄃᆞㅅㄱ</u> 何ᄀᆞ 所ㄷᄃᆞᆫ 至ᄀᆞ <화소 8:5-7>

ㄴ. 世界ㄱ 何ᄀᆞ 處ㄴ 從ㄷ 來ᄂᆞᆫᄀᆞ <u>去ᄃᆞㅅㄱ</u> 何ᄀᆞ 所ㄷᄃᆞᆫ 至ᄒᆞᆷᄃᆞㄷㅁᄂᆞᄆᆞᄉᆞ <화소 8:5-7>

(11)의 예는 똑같은 문맥에 쓰인 것이므로 실제로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去ᄃᆞㅅㄱ'은 현대국어로는 '가서는' 정도에 해당한다. '-ᄃᆞㅅㄱ/ᄃᆞ斤' 역시 '-ㅁㅅㄱ/ㅁ斤'과 마찬가지로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 '-아/어'에 보조사 '-ㄴ'이 통합한 '-안/언'이 보이는데 이 역시 '-ᄃᆞㅅㄱ/ᄃᆞ斤'에서 보조사 '-ㄱ'이 점차 쓰이지 않게 된 것을 보여 준다.

(12) ㄱ. <u>수ᄆᆞᆫ</u> 煩惱ㅅ 根本이 ᄃᆞ외오 <u>發ᄒᆞ얀</u> 虛妄ᄒᆞᆫ 根과 塵괘 ᄃᆞ외ᄂᆞ

니(潛爲煩惱根本ᄒᆞ고 發爲虛妄根塵ᄒᆞᄂᆞ니) <능엄 4:92ㄱ>

ㄴ. 迷ᄒᆞ얀 理를 일허 제 어긔오 아란 어긔요ᄆᆞᆯ 일허 理예 卽ᄒᆞ나(迷之ᄒᆞ얀 失理而自差ᄒᆞ고 悟之ᄒᆞ얀 失差而卽理ᄒᆞ나) <영가 상:91ㄱ>

ㄷ. 秘書를 보디 몯ᄒᆞ얀 ᄆᆞᅀᆞ매 일흔 ᄃᆞᆺᄒᆞ더니 秘書 보매 미쳔 ᄆᆞᅀᆞ맷 病을 일호라(不見秘書心若失 及見秘書失心病) <두초 7:29ㄱ>

(2ㅁ)처럼 '已ᄒᆞᄂᆞᆫᄀᆞᄼ'이 쓰인 예는 모두 11회인데 『유가사지론』에만 나타난다. 『유가사지론』에는 이 외에 '-ᄀᆞᄼ'이 쓰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13) ㄱ. 或 夜分ᄀᆞ十 居ᄂᆞᆫᄀᆞᄼ 而ᄭᅮ 睡眠ᄂᆞᆫ 樂着ᄂᆞᆫᄀᆞᆫ 或 晝分ᄀᆞ十 居ᄂᆞᆫᄀᆞᄼ 王賊等ᄂᆞᆫᄀᆞ 雜染言論ᄂᆞᆫ 樂ᄂᆞᆫᄀᆞᆫ <유가 26:9-14>

ㄴ. 補特伽羅ㄱ 三摩地ᄂᆞᆫ 得ᄀᆞᄼ 已 善 宣說ᄂᆞᆫᄒᆞᆷ 已 善 開示ᄂᆞᆫᄒᆞᆷᄂᆞᆫᄐᆞᄀᆞᄅᆡᄂᆡ <유가15:04-09>

ㄷ. 尸羅圓滿ᄭᅮ[之] 攝受ᄂᆞᆫᄀᆞ 所ᄂᆞᆫ 依ᄀᆞᄼ [於增上尸羅ᄀᆞ十 淨戒ᄂᆞᆫ 毁犯ᄂᆞᆫᄀᆞᄒᆞᅀᆞ 非法ᄂᆞᆫ 現行ᄂᆞᆫᄀᆞ <유가 6:17-7:2>

(2ㄷ)~(2ㅁ)의 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已ᄒᆞᄂᆞᆫᄅᆞᄂᆞᆫᄀᆞ'과 '已ᄒᆞᄂᆞᆫᄀᆞᄂᆞᆫᄀᆞ'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4) ㄱ. 念ᄑᆞ 已ᄒᆞᄂᆞᆫᄅᆞᄂᆞᆫᄀᆞ [之]ᄅᆡᄂᆞᆫ 施ᄂᆞᄑᆞᄆᆞᆷ 心ᄀᆞ十 悔ᄂᆞᄑᆞ 所ᄀᆞ無ᄒᆞᄅᆡᄂᆞᆫᄂᆞᄒᆞᄑᆞᄉᆞᄂᆞᆫ [是]ᄅᆡᄂᆞᆫ 名ᄒᆞ 內施ᄉᆞᄂᆞᄒᆞᄂᆞᄒᆞᄂᆡ <화소 11:4-5>

ㄴ. [是]ᄅᆡ 念ᄂᆞᆫ 作ᄑᆞ 已ᄒᆞᄂᆞᆫᄅᆞᄂᆞᆫᄀᆞ 卽ᄉᆞ 便ᄅᆡ [之]ᄅᆡᄂᆞᆫ 施ᄂᆞᆫᄀᆞ <화소 12:2-5>

ㄷ. [是]ᄅᆡ 觀ᄂᆞᆫ 作ᄂᆞᄑᆞ 已ᄒᆞᄂᆞᆫᄅᆞᄂᆞᆫᄀᆞ 一ㄱ 念ᄒᆞ 愛著ᄂᆞᄉᆞᄒᆞ[之]

心ヤカ 生リ尸 不ンナか <화소 16:5-10>

ㄹ. [此]リ 陀羅尼し 得尸 已ぇンぅンㄱ 法ヒ 光明し 以ぅ 廣リ 衆生ラ [爲]ニ [於]法し 演說ンア入ッリナ | <화소 25:12-15>

(14ㄱ)~(14ㄷ)의 '已ぇンロンㄱ'과 (14ㄹ)의 '已ぇンぅンㄱ'에 대해 종래에는 연결어미 '-ロ'와 '-ぅ' 뒤에 강조 표현 등에 쓰이는 동사 'ン-'가 오고 연결어미로 기능하는 '-ㄱ'이 쓰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취하면 '-ロンㄱ'과 '-ぅンㄱ'이 '-ロハㄱ'과 '-ぅハㄱ'과 같은 위치에 사용되었으며 의미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ロンㄱ'과 '-ぅンㄱ'이 쓰인 예로 (14)와 같이 '已' 자 뒤에 쓰인 예 외에 다음의 것이 더 있는데 이들 역시 '-ロンㄱ'과 '-ぅンㄱ'이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의 의미로 쓰여 '-ロハㄱ'과 '-ぅハㄱ'과 의미가 같다.

(15) ㄱ. 時十 諸ㄱ 大衆ㄱ 月光王リ 十四王ラ 量 無ヒㄱ 功德藏し 歎ンニトろㄱのし 聞白ロンㄱ 大法利し 得ヒハニか <구인 11:14-16>

ㄴ. 菩薩リ 三昧ヒ 中ぅ十 住在ンぅンㄱ 種種ヒ 自在ᅲ 衆生し 攝ンナ仝ぇ <화엄 17:4-10>

ㄷ. 菩薩ㄱ [此]リラ十 住ンぅンㄱ 普リ 觀察ンロ 宜ㄱラ十 隨ラ 示現ンぅホ 衆生し 度リナぅ 悉ぅ 歡心ᅲ 法化ぅ十 從ヒ 使リラ尸ム <화엄 17:20-23>

즉 '-ロンㄱ'과 '-ぅンㄱ'은 그 의미를 고려할 때 강조 표현 뒤에 연결어미 '-ㄱ'이 쓰였다기보다는 '-ロハㄱ, -ぅハㄱ'과 관련이 있는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이에 대해 '-ロハㄱ, -ぅハㄱ'에서 'ㄱ'이 약화되어 'ㅎ'으로 실현된 것을 반영한 표기가 '-ロンㄱ'과 '-ぅ

ㅅㄱ'인 것으로 가정을 해 볼 수 있다.[6] 즉 '-ㅁㅅㄱ'과 '-ㅇㅅㄱ' 역시 연결어미 '-ㅁ, -ㅇ' 뒤에 보조사 '-ㅅ'과 '-ㄱ'이 차례로 통합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음독구결에 보이는 'ᄼ'

연결어미 '-ㅁ, -ㅇ'에 각기 보조사 '-ㅅ'과 '-ㄱ'이 차례로 통합한 것으로 『화엄경소』와 『화엄경』에서는 '-ㅁㅅㄱ, -ㅇㅅㄱ'으로, 『유가사지론』에서는 '-ㅁᄼ, -ㅇᄼ'으로 표기되던 형태는 음독구결에서도 여전히 '-ㅁᄼ, -ㅇᄼ'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음독구결 자료 중 『梵網經』, 『楞嚴經』(남풍현본, 기림사본), 『圓覺略疏注經』에 나타나는 '-ㅁᄼ, -ㅇᄼ'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범망경』의 용례는 정재영(1996), 『능엄경』의 용례는 남풍현(1995)와 한상화(1994), 『원각약소주경』의 용례는 황선엽(1996)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먼저 이승재(1990), 정재영(1996)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범망경』의 예를 먼저 보도록 하겠다.[7] 다음은 『범망경』에 보이는 '-ㅁᄼ'의 예이다.

---

6) 이렇게 'ㅅ'가 'ㅅ'의 약화형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이승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ㄱ'의 약화와 관련한 별도의 논문을 발표하셨으므로 'ㄱ'의 약화 현상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선생님의 논문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ㅁㅅㄱ, -ㅇㅅㄱ'과 '-ㅁㅅㄱ, -ㅇㅅㄱ'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7) 구결은 '엄인섭본/국립도서관본/정신문화연구원본'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정재영(1996)에 같은 토일 때는 / 뒤에 적지 않으며, /0, //0 등은 국립도서관본과 정신문화연구원본에는 대응되는 토가 없음을 뜻하고, 吐가 완전히 같을 때에는 / 이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재영(1996)을 참조할 수 있다.

(16) ㄱ. 菩薩ㄱ 聞外道惡人果/人/ 及二乘惡人果ㅣ/人ㅣ/ 說佛法中ㅇ/ㅇㄴ/ㅇ 非法非律ㅁ斤 常生悲心ㅅㅇ 敎化是惡人輩ㅅㅇ 令生大乘善信ㅅㅜㅎㅌㄴ/ㅅㅜㅎㅌ/ㅅㅜㅇㅌ(보살은 외도 악인과 이승의 악인(소승의 악인)이 불법 중에 있는 비법 비율을 말하는 것을 듣거든 항상 자비심을 발하여 이 악인들을 교화시키며 대승의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梵網 11ㄴ-12ㄱ>

ㄴ. 菩薩ㄱ 見一切貧窮人ㅣ 來乞者ㅁ斤//(?ㅋ) 隨前人ㅋ//0 所須ㅅㅇ 一切ㄴ 給與{ㅅㅜㅎㅌㄴ}ㅅㅜㅅ/ㅅㅜㅎㅌ/ㅅㅜㅇㄴ 而菩薩ㅣㅅ//ㅣ 以惡心瞋心… 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ㅅㅏ 有求法者ㅿㅅㄱ 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ㅿㅌㅎㅌ/ㅿㅌ/ㅿㅌㅇㅌ(보살은 모든 빈궁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구하는 바를 좇아 일체를 다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베풀지 아니하며,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한 구절 게송 하나 하나의 티끌만한 법이라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梵網 12ㄴ-13ㄱ>

ㄷ. 菩薩ㄱ 見外道ㅅ/ㅏ/ㅅ 及以惡人果ㅣ/ㅅㅣ(?ㄱ)/ㅅㅣ 一言… 謗佛音聲ㅁ斤 如三百鋒… 刺心ㅅㅜㅊㄱ 況口… 自謗ㅅㅇ 不生信心孝順心ㅣㅌㅂㅗ/ㅣㅌㅅㅗ/ㅣㅌㅎㅗ(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단 한 마디라도 부처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들으면) 삼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입으로 비방하고(비방하겠는가), (또) 신심과 효순심을 발하지 않겠는가?) <梵網 13ㄴ>

ㄹ. 若佛子見一切衆生ㅋ 犯八戒五戒十戒毁禁七逆八難一切犯戒罪ㄴㅁ斤//ㄴㅁ 應敎懺悔ㅅㅜㅎㅌ(만일 불자가 일체 중생들이 팔계와 오계 십계 훼금 칠역 팔난 및 일체의 범계죄(계를 범한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니) <梵網 16ㄱㄴ>

위의 예에서 '-ㅁᄀᆞᆫ'은 현대국어로 '-거든' 내지 '-면' 정도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범망경』에서 '-ㅁᄀᆞᆫ'은 조건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들에서 '-ㅁᄀᆞᆫ'을 '-거든'이나 '-면'이 아닌 '-고서는' 내지 '-고 나서는'으로 바꾸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다.

다음은 『범망경』에 보이는 '-ㅣᄀᆞᆫ'의 예이다.

(17) ㄱ. 衆集默然聽ᄂᆞᆡ 自知有罪ᄂᆞᆡᄀᆞᆫ 當懺悔ᄂᆞᆺᄒᆡ 懺悔ᄂᆞᆫᄀᆞ//ᄂᆞᆫᄀᆞ 卽安樂ᄂᆞᆺᄒᆞᆷᄒᆡᄉᆞᆷ//ᄂᆞᆺᄒᆞᅀᆞᆷ 不懺悔ᄂᆞᆫᄀᆞ//ᄂᆞᆫᄀᆞ 罪益深ᄂᆞᆺᄉᆞ(대중은 默默히 듣고서 스스로 罪가 있거든 마땅히 懺悔하라. 懺悔하면 安樂하고 懺悔하지 아니하면 罪가 더욱 깊어지리라.) <梵網 1ㄱ>

ㄴ. 卽得戒已ᄂᆞᆡᄀᆞᆫ 生孝順心恭敬心ᄂᆞᆡ 見上座和上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ㅁᄀᆞᆫ 應起承迎ᄂᆞᆡ 禮拜問訊ᄂᆞᆺᄒᆞᆷᄒᆡᄅᆞ/ᄂᆞᆺᄒᆞᆷᄒᆡ/ᄂᆞᆺᄒᆞᅀᆞᄅᆞ(즉 이미 계를 받았으면 효순심과 공경심을 내어 상좌와 화상, 아사리, 대동학, 동견, 동행 등을 보거든 일어나서 마중하며 예배하고 문안 드리고 인사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梵網 15ㄱ>

ㄷ. 而菩薩ㄱ/ㅐ/ㄱ 入一切處山林川野ᄂᆞᆡᄀᆞᆫ 皆使一切衆生… 發菩薩心ᄂᆞᆺᄉᆞ(보살은 모든 산과 숲 하천 들에 들어가거든 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梵網 41ㄱ>

ㄹ. 其餘千百億釋迦ㅐ//ㅈ 亦復如是ᄂᆞᆡᄂᆞᆫᄀᆞ/ᄂᆞᆡᄀᆞᆫ/ᄂᆞᆺᄒᆡ 無二0/0/ᄂᆞᆺᄀᆞ 無別ᄂᆞᆺᄒᆡ 如賢劫品中ᄂᆡ 說ㅿㅣ(그 나머지 천백억의 석가도 또한 이와 같으니 둘이 아니고 다름이 없으니 현겁품에서 말한 바와 같다.) <梵網 4ㄴ>

ㅁ. 汝新學菩薩ㄱ 頂戴受持戒ᄂᆞᆺᄉᆞ 受持是戒已ᄂᆞᆡᄀᆞᆫ 轉授諸衆生ᄂᆞᆺᄉᆞ(너희들 새로 배우는 菩薩들도 이 戒를 받들어 가져서 受持한 다음에는 모든 衆生들에게 傳하여 줄지어

다.) <梵網 7ㄱ>

'-ㅈㅿ' 역시 '-ㅁ亓'과 마찬가지로 조건의 연결어미로 해석되는 예들이 많다. 그러나 (17ㄹ)과 (17ㅁ)은 '-면'이나 '-거든'과 같은 조건의 의미보다는 계기의 의미가 강하다. 이승재(1990)에서 "ㅈㅿ도 일부 문제가 되는 예문이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 것도 (17ㄹ)과 (17ㅁ) 같은 예를 고려한 설명으로 생각된다. 특히 (17ㄹ)은 이본에 따라 '-ㅈㅿ'이 '-ㅈㅅㄱ'으로 나타난 예가 있는바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석독구결과 같이 'ㄱ'이 약화된 형태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ㅈㅅㄱ'을 음독구결에서도 '亓'이 '늘'이 아닌 '근'으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상의 예를 토대로 그 형태 구성상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ㅁ亓'과 '-ㅈㅿ'은 이전 시기 문맥에 따라 '계기+한정'의 의미가 두드러지기도 하고 '계기+조건'의 의미가 두드러지기도 하였는데 『범망경』에서 '-ㅁ亓'은 '계기+조건'의 의미로만 사용된 데 반해 '-ㅈㅿ'은 드물게나마 '계기+한정'의 의미를 유지한 예가 보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보조사 '-ㄱ'이 많이 쓰이지 않게 됨에 따라 보조사 '-ㄴ' 앞에 올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ㅁ亓'과 '-ㅈㅿ'에 대한 형태 분석이 불가능해져 점차 이들의 쓰임도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ㅁ亓'과 '-ㅈㅿ'은 점차 '계기+한정'의 의미로 쓰이는 일이 줄어들고 '계기+조건'의 의미만이 남게 되어 조건의 연결어미로 굳어져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ㅈㅿ'보다는 '-ㅁ亓'에서 그러한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8]

다음으로 음독구결 자료 중 『능엄경』에 나타나는 '-ㅁ亓'과 '-ㅈㅿ'

8)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계기+한정'은 '계기'로, '계기+조건'은 '조건'으로 칭하기로 한다.

의 예를 살펴보자. 『능엄경』은 여러 종류의 음독구결 자료가 있으나 <남풍현본>과 <기림사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5세기의 언해본과도 대조를 하였다.

(18) ㄱ. 此見ㄱ 離彼明暗二塵ㅁㅱ 畢竟 無體ㅅㅌㅅ<능엄남 3:1ㄱ8>
此見ㄱ 離彼明暗二塵ㅁㅱ 畢竟ㅋ 無體ㅅㅌㅅ <능엄기 3:1ㄴ6>
此見이 離彼明暗二塵ᄒᆞ면 畢竟에 無體ᄒᆞ니라 <능엄언 3:2ㄱ>
이 見이 뎌 불ᄀᆞ며 어드운 두 드트를 여희면 ᄆᆞᄎᆞ매 體 업스니라 <능엄언 3:2ㄴ>

ㄴ. 此聞ㄱ 離彼動靜二塵ㅁㅱ 畢竟 無體ㅅㅌㅅ<능엄남 3:1ㄴ5>
此聞ㄱ 離彼動靜二塵ㅁㅱ 畢竟ㅋ 無體ㅅㅌㅅ <능엄기 3:3ㄱ3>
此聞이 離彼動靜二塵ᄒᆞ면 畢竟에 無體ᄒᆞ니라 <능엄언 3:5ㄴ>
이 드로미 뎌 動과 靜과 두 드트를 여희면 ᄆᆞᄎᆞ매 體 업스니라 <능엄언 3:5ㄴ>

ㄷ. 此聞ㄱ 離彼通塞二塵ㅁㅱ 畢竟 無體ㅅㅌㅌ<능엄남 3:1ㄴ15>
此聞ㄱ 離彼通塞二塵ㅁㅱ 畢竟ㅋ 無體ㅅㅌㅅ <능엄기 3:4ㄱ3>
此聞이 離彼通塞二塵ᄒᆞ면 畢竟에 無體ᄒᆞ니 <능엄언 3:7ㄴ>
이 마토미 뎌 通과 마곰과 두 드트를 여희면 ᄆᆞᄎᆞ매 體 업스니 <능엄언 3:8ㄱ>

ㄹ. 若離色空動靜通塞合離生滅ㅅㅋ 越此諸相ㅁㅱ 終無所得ㅅㅌㅅ <능엄남 3:9ㄴ6>
若離色空動靜通塞合離生滅ㅅㅋ 越此諸相ㅁㅱ 終無所得ㅅㅌㅅ <능엄기 3:26ㄱ1>
若離色空과 動靜과 通塞과 合離와 生滅와 ᄒᆞ면 越此諸相ᄒᆞ얀 終無所得ᄒᆞ니라 <능엄언 3:59ㄴ>
ᄒᆞ다가 色과 空과 動과 靜과 通과 마곰과 어우룸과 여희욤과 生과 滅와ᄅᆞᆯ 여희면 이 모ᄃᆞᆫ 相을 디나ᄂᆞᆫ ᄆᆞᄎᆞ매 得호미 업스니라 <능엄언 3:59ㄱ>

ㅁ. 若此見精ㅅ 與暗與明ㅱ 非一體者ㅅㅊ 汝離明暗及與虛空ㅁㅱ

(?) 分析見元ᄋᆞᅀ <능엄남 3:14ㄴ4>
若此見精ᄂᆞ 與暗與明ᄭᅩ 非一體者ㄱᆞ大ㄱ 汝離明暗及與虛空ㅁᆞᆫ 分析見元ᄋᆞᅀ <능엄기 3:40ㄴ1-2>
若此見精이 與暗과 與明과로 非一體者ㄴ댄 汝ㅣ 離明暗과 及與虛空ᄒᆞ곡 分析見元ᄒᆞ라 <능엄언 3:94ㄴ>
ᄒᆞ다가 이 見精이 어드움과 ᄇᆞᆯ곰과로 ᄒᆞᆫ 體 아닌댄 네 ᄇᆞᆯ곰과 어드움과 虛空ᄋᆞᆯ 여희옥 見元을 ᄂᆞᆫ호아 ᄢᅴ혀라 <능엄언 3:95ㄱ>

(19) ㄱ. 惑遇蘇酪醍醐ᄂᆞᆞᆫ 名爲上味ᄉᆞᄉᆞᄂᆞᄂᆡ 於意云何ᄋᆞᄂᆡᄒᆞ <능엄남 3:4ㄴ8>
惑遇蘇酪醍醐ᄂᆞᆞᆫ 名爲上味ᄉᆞᄉᆞᄂᆞᄂᆡ 於意ᄂᆞᆞㄱ 云何ᄋᆞᄎᆞᄒᆞ <능엄기 3:12ㄱ6>
惑遇酥酪醍醐ᄒᆞ면 名爲上味니 於意云何오 <능엄언 3:26ㄱ>
시혹 酥와 酪과 醍醐ᄅᆞᆯ 맛나면 일후미 爲頭ᄒᆞᆫ 마시니 ᄠᅳ데 엇더뇨 <능엄언 3:26ㄴ>
ㄴ. 阿難ᄂᆞ 若復此味ᄂᆞ 生於汝舌ᄂᆞᆫ大 在汝ᄋᆞ 口中ᄂᆞᆞᆫ ㄱ 祇有一舌ᄋᆞᄂᆡ 其舌 爾時ᄂᆞ 已成 蘇味ᄋᆞᄉᆞᄆᆞ 遇黑石蜜ᄂᆞᆞᆫ ㅛ 應不推移ᄋᆞᄆᆞᄂᆡᄏᆞᄉᆞ <능엄남 3:4ㄴ11>
阿難ᄆᆞ 若復此味ᄂᆞ 生於汝舌印大ㄱ 在汝ᄋᆞ 口中ᄂᆞᆞᆫ 祇有一舌ᄋᆞᄂᆡ 其舌ᄂᆞ 爾時ᄂᆞ 已成蘇味ᄋᆞᄉᆞㄱᆞᄆᆞ 遇黑石蜜ᄂᆞᆞᆫ/ᄂᆞᆞᆫ ㅛ 應不推移ᄋᆞᄎᆞᄉᆞᄏᆞᄒᆞᄉᆞ <능엄기 3:12ㄱ8-12ㄴ1>
阿難아 若復此味ㅣ 生於汝舌인댄 在汝口中ᄒᆞ야 祇有一舌커시니 其舌이 爾時예 已成酥味ᄒᆞᆯ시 遇黑石蜜ᄒᆞ야 應不推移로다 <능엄언 3:26ㄴ>
阿難아 ᄒᆞ다가 ᄯᅩ 이 마시 네 혀에셔 낧딘댄 네 입안해 이셔 오직 ᄒᆞᆫ 혜 잇거시니 그 혜 그ᄢᅴ ᄒᆞ마 蘇ㅅ 마시 일씨 거믄 石蜜을 맛나 반ᄃᆞ기 미러 옮기디 몯ᄒᆞ리로다 <능엄언 3:27ㄱ>
ㄷ. 是故ᄭᅩ 林藪ᄂᆞ 遇燒ᄂᆞᆞᆫ ㅅ 成土ㅁᆞ 因絞ᄂᆞᆞᆫ 成水ᄋᆞᄂᆡᄒᆞ

<능엄남 4:3ㄱ15>
是故ᄲᅳ 林藪ㅅ 遇燒ᄂᆞᆯ 成土ㅁ 因絞ᄂᆞᆯᄀᆞᆫ 成水ᄂᆞᄇᆞᄉᆞ
<능엄기 4:8ㄱ5>
是故로 林藪ㅣ 遇燒ᄒᆞ얀 成土ᄒᆞ고 因絞ᄒᆞ얀 成水ᄒᆞᄂᆞ니라
<능엄언 4:18ㄱ>
이런ᄃᆞ로 林藪ㅣ ᄉᆞ로ᄆᆞᆯ 맛난 土ㅣ 일오 줄오ᄆᆞᆯ 因ᄒᆞ얀 水이ᄂᆞ니라 <능엄언 4:18ㄴ>

ㄹ. 寶明ㅅ 生潤等者ㄱ 由堅覺ㅅ 生識 而蒸以煩惱ᄂᆞᆯ <능엄남 4:3ㄴ6>
寶明 生潤等者ㄱ 由堅覺ㅅ 生識ᄂᆞᆯᄀᆞᆫ 而蒸以煩惱ᄂᆞᆯ <능엄기 4:8ㄴ8>
寶明生潤等者ᄂᆞᆫ 由堅覺ᄒᆞ야 生識ᄒᆞ고 而蒸以煩惱ᄒᆞ야 <능엄언 4:19ㄴ>
寶明이 저주믈 내다 ᄒᆞ샴ᄃᆞᆯᄒᆞᆫ 覺 구틔ᄆᆞᆯ 브터 識을 내오 煩惱로 ᄡᅥ <능엄언 4:22ㄱ>

(18)은 '-ㅁᄀᆞᆫ'의 예이고 (19)는 '-ᄂᆞᆯᄀᆞᆫ'의 예이다. '-ㅁᄀᆞᆫ'은 언해 구결에서 '-면'에 대응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능엄경』에서도 『범망경』과 같이 조건의 의미로 쓰인 예들이 많다. 그러나 (18ㄹ)과 (18ㅁ)은 'ᄒᆞ얀'이나 'ᄒᆞ곡'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ㅁᄀᆞᆫ'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기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18ㄹ)은 '若'이 쓰인 조건문이어서 언해와 달리 음독구결에서는 '離色空動靜通塞合離生滅'까지가 아니라 '越此諸相'까지를 '若'에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8ㅁ)은 '-ㅁᄀᆞᆫ' 앞에 조건의 연결어미 '-ㄴᄃᆞ, ㄱᄃᆞᄀᆞ'이 있으므로 '若'이 '汝離明暗及與虛空'까지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언해와 마찬가지로 계기의 의미를 지니는 '-곡' 정도의 의미임이 확실하다. 『범망경』에서도 '-ㅁᄀᆞᆫ'과 달리 '-ᄂᆞᆯᄀᆞᆫ'은 계기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예가 있었는데 『능엄경』에서는 더욱 그러한 예

들이 많아서 (19ㄱ)을 제외하면 조건의 의미가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특히 (19ㄷ)은 'ᄂᆞᆷᄀᆞᆯ'에서 보조사 '-ㄱ'이 없어진 'ᄒᆞ얀'과 대응되는 예를 보여 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능엄경』에서도 『범망경』과 마찬가지로 '-ㅁᄀᆞᆯ'과 '-ᄂᆞᆷᄀᆞᆯ'이 그 형태적 구성을 인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건의 연결어미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이나 『범망경』보다는 원래의 의미가 더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독구결 자료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원각약소주경』의 예들을 살펴보겠다.

(20) ㄱ. 因指見月ᄂᆞᄆᆡᄒᆡ 見月ㅁᄀᆞᆯ 忘指ᄂᆞᄒᆞᅀᆞ 因教ᄂᆞᆷᄀᆞ 筌心ᄂᆞᄆᆡᄒᆡ 悟心ㅁᄐᆞ 忘教ᄂᆞᄒᆞᅀᆞ <원약 하1:13ㄷ>

因指見月ᄒᆞ야도 見月코 忘指며 因教筌心ᄒᆞ야도 悟心코 忘教ㅣ니 <원언 하1-2:33ㄱ>

ᄉᆞᆫ가라ᄀᆞᆯ 因ᄒᆞ야 ᄃᆞᆯ 보아도 ᄃᆞ를 보고 ᄉᆞᆫ가라ᄀᆞᆯ 니즈며 教를 因ᄒᆞ야 ᄆᆞᄉᆞᄆᆞᆯ 닐어도 ᄆᆞᄉᆞᄆᆞᆯ 알오 教를 니줄 디니 <원언 하1-2:34ㄴ>

ㄴ. 遇善境界ᄂᆞᄉᆞᆨᄀᆞ 得心輕安ᄂᆞᄒᆞᄒᆡ 過三七日ㅁᄀᆞᆯ 一向攝念ᄂᆞᄒᆞᅀᆞ <원약 하2:18ㄴ>

遇善境界ᄒᆞ야 得心輕安ᄒᆞ리니 過三七日ᄒᆞ야 一向攝念호리라 <원언 하3-2:26ㄴ-28ㄱ>

善境界를 맛나 ᄆᆞᄉᆞ미 輕安을 得ᄒᆞ리니 三七日을 디내야 一向ᄒᆞ야 念을 자보리라 <원언 하3-2:26ㄴ-28ㄱ>

ㄷ. 善男子 此名菩薩示現安居ᄉᆞᄂᆞᄋᆞᄒᆡ 過三期日ㅁᄀᆞᆯ 隨往無礙ᄂᆞᄒᆞᅀᆞ <원약 하2:19ㄴ>

善男子아 此名菩薩示現安居ㅣ니 過三期日ᄒᆞ야 隨往無礙니라 <원언 하3-2:38ㄱ>

善男子아 이 일후미 菩薩의 安居를 나토아 뵈요미니 三期日

을 디내야 가ᄆᆞᆯ 조차 ᄀᆞᄅᆞᆷ 업스니라 <원언 하3-2:38ㄱ>

(21) ㄱ. 應作是言ㅅᄆᆞᆷ 願我ㄱ 今者ㅣ 住佛圓覺ㅅㅣ 求善知識ㅅㅣ 莫值外道及與二乘ᄉᆞㅅㅣᄼ 依 願修行ㅅᄀᆞㄱ 漸斷諸障ㅅᄒᆞㅂ <원약 하1:8ㄴ>

應作是言호ᄃᆡ 願我ㅣ 今者애 住佛圓覺ᄒᆞ야 求善知識ᄒᆞ고 莫值外道와 及與二乘ᄒᆞ야지라코ᄼ 依願修行ᄒᆞ야 漸斷諸障ᄒᆞ면 <원언 하1-1:63ㄴ-65ㄴ>

반ᄃᆞ기 이 말 호ᄃᆡ 願ᄒᆞᆫᄃᆞᆫ 내 이제 부텻 圓覺애 住ᄒᆞ야 善知識을 求ᄒᆞ고 外道와 二乘과ᄅᆞᆯ 맛나디 아니ᄒᆞ야지라 코 願을 브터 脩行ᄒᆞ야 漸漸 한 障ᄋᆞᆯ 그츠면 <원언 하1-1:63ㄴ-65ㄴ>

ㄴ. 廻入塵勞ㅅㅣᄼ 當設幾種敎化方便ㅅㅣ 度諸衆生ㅅᄒᆞᄉᆞᄒᆞㅂㅣㅂㅁ <원약 하1:1ㄹ>

廻入塵勞호ᄃᆡᄼ 當設幾種敎化方便ᄒᆞ야 度諸衆生ᄒᆞ리잇고 <원언 하1-1:6ㄱ>

塵勞애 도라 드로ᄃᆡ 반ᄃᆞ기 몃 가짓 敎化 方便을 밍ᄀᆞ라 한 衆生ᄋᆞᆯ 度脫ᄒᆞ리잇고 <원언 하1-1:6ㄱ>

ㄷ. 首楞ㅣ 云流愛爲種ㅁ 納想ㅅㅣ 爲胎ㅅㅂㅂ 交遘發生ㅅㅣᄼ 吸引同業ㅅㅂㅂ 以是因緣… 故有生死ᄉᆞㅅㅇㄱㅈ <원약 하1:2ㄹ>

首楞에 云ᄒᆞ샤ᄃᆡ 流愛ᄒᆞ야 爲種ᄒᆞ며 納想ᄒᆞ야 爲胎ᄒᆞ야 交遘發生ᄒᆞ며 吸引同業ᄒᆞᆯᄉᆡ 以是因緣으로 故有生死ᄒᆞ니라 <원언 하1-1:13ㄱ>

首楞에 니ᄅᆞ샤ᄃᆡ 愛ᄅᆞᆯ 흘려 ᄲᅴ ᄃᆞ외며 想ᄋᆞᆯ 드려 胎 ᄃᆞ외야 셧거 모다 發生ᄒᆞ며 業 ᄒᆞᆫ가지닐 드리혈ᄉᆡ 이 因緣ㅅ 젼ᄎᆞ로 生死ㅣ 잇ᄂᆞ니라 <원언 하1-1:16ㄱ>

ㄹ. 道場之內ㅣ 且學悲心ㅅㅣ 限滿對緣ㅅㅣᄼ 卽將化用ㅅᄒᆞᄉᆞ <원약 하2:20ㄴ>

道場之內예 且學悲心ᄒᆞ야 限滿對緣ᄒᆞ야 卽將化用ᄒᆞ리라 <원언 하3-2:44ㄴ>

道場 內예 또 悲心을 비화 限이 ᄎᆞ거든 緣을 對ᄒᆞ야 곧 쟝ᄎᆞ 化ᄒᆞ야 쁘리라 <원언 하3-2:44ㄱ>

(20)은 '-ㅁᄀᆞ'의 예이고 (21)은 '-ㅿᄀᆞ'의 예인데 (21ㄴ)을 제외하고는 조건의 연결어미에 대응되는 예를 보이지 않는다. 위에 예시한 음독구결 자료 중에서는 '-ㅁᄀᆞ'과 '-ㅿᄀᆞ'에 관한 한은 『원각약소주경』이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석독구결 및 음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ᄀᆞ'은 이전의 연구에서 훈독하여 '놀'로 읽어 왔다. 그러나 '-ㅁᄀᆞ'과 '-ㅿᄀᆞ'으로만 나타나는 'ᄀᆞ'을 '놀'로 읽게 되면 전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ㄱㄴ/ㅌ'에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ㅁㄱㄴ', '-ㅿㄱㄴ'과 동음의 형태소가 된다. '-ᄀᆞ'과 '-ㄱㄴ, -ㅌ'은 의미뿐 아니라 선어말어미의 통합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형태임이 분명하므로 동음이의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동음이의의 문법형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연결어미 범주 안에 이러한 형태를 가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ㅿㄱㄴ'의 'ㅿ'는 'ㅈ'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ㅿᄀᆞ'의 'ㅿ'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의문이다. 또한 'ᄀᆞ'을 훈독하여 '놀'로 읽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게다가 'ᄀᆞ'의 훈이 '놀'이 아니라 '놇'이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ㅁㅅㄱ'과 '-ㅁᄀᆞ', '-ㅿㅅㄱ'과 '-ㅿᄀᆞ'의 관계에 주목하여 'ᄀᆞ'을 음독하여 '근'으로 읽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ㅁㅅㄱ/ㅁᄀᆞ'과 '-ㅿㅅㄱ/ㅿᄀᆞ'은 각각 연결어미 '-ㅁ'와 '-ㅿ'에 보조사 '-ㅅ'과 '-ㄱ'이 차례로 통합한 형태이다. '-ㅁㅅㄱ

/ㅁ斤'과 '-ㅋㅅㄱ/ㅋ斤'은 석독구결에서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의 연결어미로 기능한다. 음독구결에서는 '-ㅁ斤'과 '-ㅋ斤'으로만 표기되어 나타나는데 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계기+한정'의 의미보다는 '계기+조건'의 의미로 쓰인 예가 더 많다. 아마도 '-ㅁ斤'과 '-ㅋ斤'이 연결어미 '-ㅁ'와 '-ㅋ'에 보조사 '-ㅅ'과 '-ㄱ'이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조건의 연결어미로 쓰임이 제약되어 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보조사 '-ㄱ'의 쇠퇴와 보조사 '-ㄱ' 뒤에 다시 보조사 '-ㄴ'이 통합할 수 없게 된 변화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새롭게 알 수 있게 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석독구결 및 음독구결에 보이는 '斤'은 음독하여 '근'으로 읽을 수 있다.

(2) 고려시대에는 보조사 '-ㄱ' 뒤에 다시 보조사 '-ㄴ'이 통합할 수 있었다.

(3) 연결어미 '-ㅁ'와 '-ㅋ'에 보조사 '-ㅅ'과 '-ㄱ'이 통합하여 형성된 '-ㅁㅅㄱ/ㅁ斤'과 '-ㅋㅅㄱ/ㅋ斤'은 석독구결에서는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의 의미로 쓰였다.

(4) 음독구결에서는 '-ㅁ斤'과 '-ㅋ斤'으로 표기되었으며 '계기+조건'의 의미로 쓰인 예가 많다.

(5) 'ㅅ'의 독음을 '기'로 추정하는 견해와 '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ㅁㅅㄱ, -ㅋㅅㄱ'을 '-ㅁ斤, -ㅋ斤'으로 표기한 것에서 'ㅅ'를 당시에 'ㄱ'으로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두찬(1987), 「直指心體要節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 16.
남풍현(1993), 「고려본 瑜伽師地論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81집.
_____(1995), 「朴東燮本 능엄경의 해제」, 『구결자료집』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이승재(1990), 「고려본 梵網經의 구결」, 『애산학보』 9.
_____(1993), 「麗末鮮初의 구결자료」,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_____(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이 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정재영(1996), 「순독구결 자료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한상화(1994), 「기림사본 楞嚴經 구결의 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황선엽(1996), 「一簑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口訣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_____(2002ㄱ),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 국어학회.
_____(2002ㄴ),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E-mail: hsy1119@netian.com
접수일자: 2002.11.25.
게재결정: 2003.01.25.

A Study on 'ᄀᆞᆫ(geun)' in Kugyol

Hwang, Seon-yeop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the new interpretation of a character 'ᄀᆞᆫ(geun)' that used in Seokdokkugyol(釋讀口訣) and Eumdokkugyol(音讀口訣).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have read 'ᄀᆞᆫ' as /nʌl/ and interpreted 'ᄀᆞᆫ' as a conjunctive ending. But In the light of a fact that 'ᄆᆞᄒᆞᄀᆞ'(go-k-eun) replaced 'ᄆᆞᄒᆞᄀᆞᆫ' in the same construction, I argued that the sound value of 'ᄀᆞᆫ' is /geun/. 'ᄀᆞᆫ(geun)' is formed out of the integration of bojosa(補助詞) '-ㄱ(k)' and bojosa(補助詞) '-ㄴ(n)'. The integration of bojosa (補助詞) '-ㄱ(k)' and bojosa(補助詞) '-ㄴ(n)' was impossible in 15th century Korean.

*Key words: Seokdokkugyol(釋讀口訣), Eumdokkugyol(音讀口訣), ᄀᆞᆫ(geun) of interpretation, integration of bojosa(補助詞)